

1. 이달의 소식

- | | |
|------------------|-----|
| 1. 정기모임 안내 | 1쪽 |
| 2. 창조과학심화과정(안내) | 17쪽 |
| 3. 청소년 창조 캠프(안내) | 19쪽 |
| 4. 지부소식 | 21쪽 |

II. 특집


- ## 1. 유신론적진화론(7) 구조가설 2쪽

III. 내용

- | | |
|----------------------------------|-----|
| 1. 정재훈 칼럼(26) 수판이론 | 6쪽 |
| 2. 성경여행(95) 맹렬한 풀무불(다니엘3) - 이종헌역 | 10쪽 |
| 3. 창조기사(51) 창조된 종류 - 이종헌역 | 13쪽 |



인사말



유신 진화론이 점점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유신 진화론자임을 드러내는 고백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자신이 유신 진화론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이 유신 진화론을 신뢰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반성경적인 생각으로 비난을 받기 보다는 기존 교회의 부조리를 저항했던 루터의 개혁처럼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유신 진화론자들의 성경해석이 루터의 개혁과 닮았을까요? 아시다시피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루터의 개혁과 완전히 다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면 유신 진화론자들의 개혁은 ‘과학’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주의라는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과학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이사야 40:8)

그들도 알다시피 과학지식은 변하고,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말씀의 역사적 사실성을 수호한다는 강한 자부심으로 우리 지부에서 행하는 창조캠프와 모든 사역들이 능력 있게 진행되길 소망하며 우리 대구지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이 널리 전파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글: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홍보팀장 정재훈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7월에는 “한자와
창세기”(강의 주제 변경 가능) 강의가 있고, 이어서
창조과학 캠프 평가회가 있겠습니다. (6시30분부터
간식을 드신 후 7시 10분부터 강의를 진행될 예정입
니다.)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64(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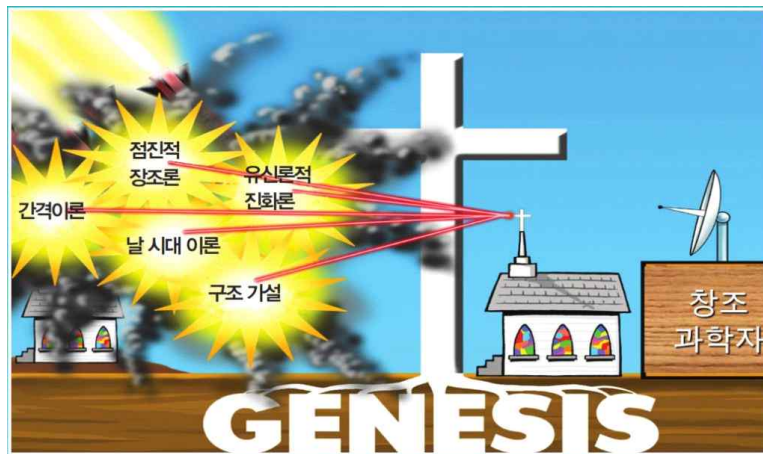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구조가설

창세기 전반부가 시?

이재만선교사 글



1800년도 말에 진화론교육으로 인해 기독교인들도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생각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두 가지 자세를 취하였다. 하나는 진화론과 “절충”하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회피”하려는 자세이다. 지난 호까지 다루었던 유신론적 진화론 류 즉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 등은 모두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를 말하는 진화론과 절충하려는 타협이론들이다. 실제로 이런 이론들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진화론적 접근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이론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다루고자 하는 구조 가설 (Framework Hypothesis, 또는 골격 해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24년 네델란드 신학자인 누르티즈(Arie Noordtzij)에 의해 시도되었고 약 30년 후에 클라인(Meredith Kline)과 리더보스(N. H. Ridderbos)에 의해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이론이 되었다. 구조 가설은 한마디로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문학 장르로 보며 상징이나 시적 표현을 찾으려는 시도다. 구조 가설은 최근 구약 신학계에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며 가장 마지막 시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화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조 가설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의 창조 주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젊은 지구론자들을 논박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목표입니다…. 시간의 틀에 관한 결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학자들은 성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Meredith G. Kline, “Space and Time in the Genesis Cosmogony,”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48 [March 1996]: 2).

예를 들어, 구조가설에서는 창세기 1장 창조 6일에 대하여 첫 3일의 주제가 나중 3일과 평행하게 전개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즉 첫째 날과 넷째 날은 같은 창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루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이며,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표 참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눔	넷째 날	해, 달, 별 창조
둘째 날	궁창으로 물을 나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
셋째 날	물과 식물의 등장	여섯째 날	육상 동물과 인간의 창조

언뜻 보기에 위의 표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도 위와 같은 패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몇 가지만 보자. 첫째 날을 보면, 단지 빛과 어둠만이 등장하지 않는다. 시간, 하늘, 지구도 등장한다. 창세기 1장 1절뿐 아니라 5절에 이르기까지 문맥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고 비어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리고 빛이 비취졌을 때 낮과 밤이 반복되기 시작한 지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어두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과 시적인 대구를 이룬다고 보면 넷째 날에는 오히려 지구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날에 창조된 궁창 위의 물에 대하여는 다섯째 날에 아예 언급조차 없다. 또한 물이 언급된 것은 둘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며, 패턴으로 보자면 물고기는 둘째 날이 아닌 바다가 창조된 셋째 날과 대응되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어야 더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셋째 날에 바다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환경 요소를 먼저 갖추시고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사건이나 시간 순의 기록이 아닌 왜 시적 구조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집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우려 해도 어항과 물과 기타 환경적인 요소를 미리 준비하고 물

고기를 어항 속에 넣는다. 이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미리 설계하고 고려하여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을 갖추는 지성적이고 당연한 과정이다. 어떤 사람이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풀어놓는 전 과정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일지로 받아들일까? 창세기 1장을 골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성경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었을 리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이는 잘못된 편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문학 구조에 필요한 요소에만 집중하여 창세기에 기록된 다른 요소들을 그냥 지나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허술한 구조 가설에 매료되는 이유도 이들과 같을 것이다. 자신이 배워왔던 진화론의 영향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성경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신학자에게 히브리 학자 보이드(Steven Boyd)의 지적에 주목하길 권한다. 그는 창세기 1장이 시가 아닌 역사 서술로써 쓰여졌음이 명백한 이유로 히브리 역사 서술은 자주, 과거 시점의 순차적 사건을 가리키는, waw(‘and’, ‘그리고’로 번역될 수 있음)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창세기 이외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역사 서술인지 시인지 분명히 구분되는 문장을 비교해 볼 때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역사 서술 방식에 일치한다. 예를 들어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쳐부순 기록은 역사적 서술로써 설명되어 있지만 5장은 시적 노래이다.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시적 묘사인 시편 104편과 창세기 1장을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다. 보이드는 성경의 522 문장을 분류 연구한 결과 창세기 1장은 100% 역사적 서술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구조 가설은 성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경의 기자들은 수없이 창세기의 전반부를 사실로 인용하였으며 역사적 교리적으로 항상 사실로 받아들였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6일로(출 31:17) 바벨탑도 사실로 묘사했다(신 32:8).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창세기 11장에 기초하여 언급했다(수 24:2). 역대상에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대로 반복했다. 욥은 창조와 홍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잠언도 창조를 언급한다(8:22-31). 선지서를 보아도 그들

은 창세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사 40:26; 45:18, 렘 10:11-13, 겔 14:14, 20, 미 5:6, 스 5:11).

신약에 와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인간으로(롬 5:12-19, 고전 11:7-12, 15:21-22, 고후 11:3, 딤후 2:13-15), 히브리서 기자도 창조 완성과 안식을(4:1-11),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그대로 기록했다. 베드로도 홍수를(벧전 3:20; 벧후 2:4-5; 3:5-6), 요한은 가인과 아벨을(요일 3:12), 유다는 가인, 에녹, 아담을(6, 14) 그대로 언급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다. 결혼(마 19:3-6), 노아의 날(눅 17:26-27), 아벨(마 23:35), 하나님의 창조(막 13:19), 에덴동산(요 8:44) 등 기본적인 근거를 창세기 전반부에 두었다. 창세기 내용들을 인용한 부분을 더 이상 나열하려 해도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 12장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곳에 성경은 창세기 전반부를 역사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기독교 교리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창세기 전반부를 문학작품으로 여긴다면 기독교의 교리 또한 그와 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신학교와 교회에서 창세기 전반부를 시나 설화로 가르쳤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는 이제까지 다루어왔던 유신론적 진화론들을 받아들였을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것이다!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 결과로나 구조 가설을 받아들일 어떤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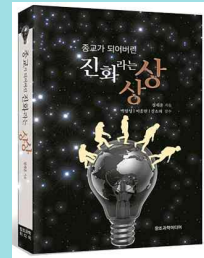
1. 과학적으로 옳은가? No
2.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가? No
3.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No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No
5.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믿음을 전수했는가? No [창조](#)

정재훈 칼럼(26) 수판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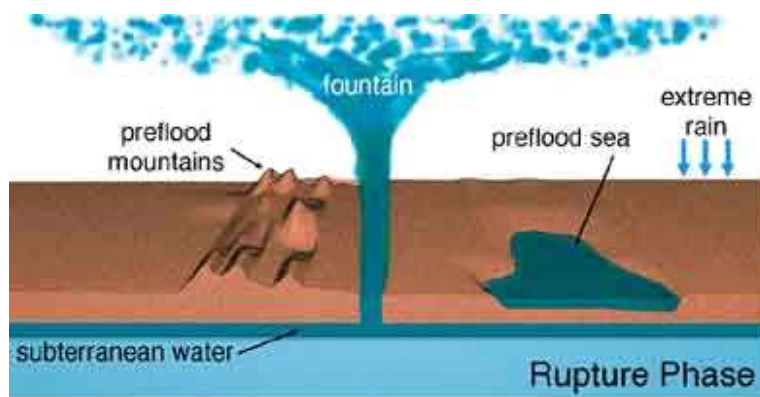
정재훈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대구관문초등학교 교사)

26. 수판이론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26	수판 이론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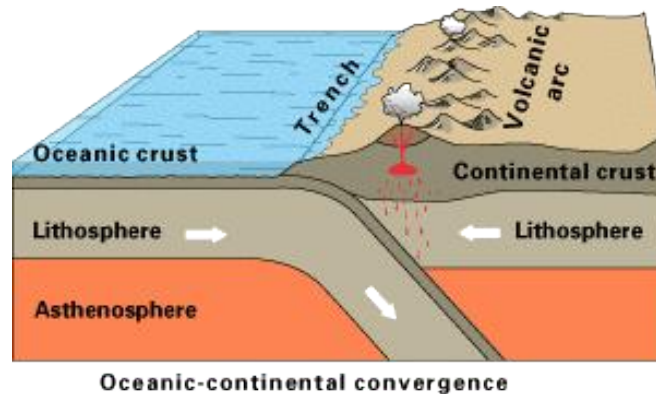
말도 안 되는 가설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수판 이론도 물리학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글의 내용상 핵심만 뽑아서 쓰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판 이론’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수판 이론〉

분출된 지하수는 엄청난 압력으로 지표를 침식시켰고, 분출구인 해령을 경계로 지판은 지하수층 위를 미끄러지듯 해령의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갈라진 지판은 지표 아래 지하수층의 윤활유 작용 덕분에 미끄러지듯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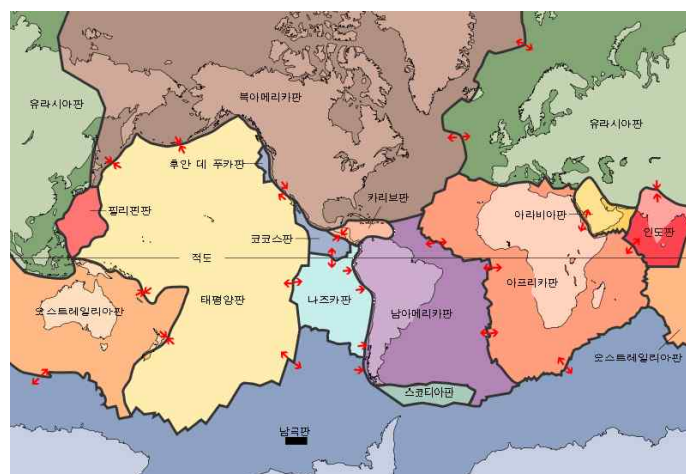
이때 이동한 지판이 다른 지판과 부딪히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대륙판을 밀어 올려 산맥이 형성되었다.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의 출처를 소개하는 또 다른 이론은 ‘격변적 판구조론’이다. 짧은 연대를 지지하는 창조론자들은 대륙이 ‘격변’적 사건에 의해 짧은 시간에 이동하였음을 주장하는 ‘격변적 판구조론’을 지지하기도 한다.

격변적 판구조론과 오랜 연대설적 판구조론은 판이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지판이 이동하게 된 원인과 시기, 그리고 지판의 이동 속도를 다르게 해석한다.



〈판 구조론〉

오랜 연대설적 판구조론에서는 지판이 맨틀의 대류에 따라 연간 2 cm 에서 10 cm의 느린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여 온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대륙의 이동을 오랜 지질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격변적 판구조론에서는 대륙의 이동이 창세기 대홍수사건이라는 대격변에 의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일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오늘날 측정되는 연간 2 cm 에서 10 cm의 느린 속도는 대격변적인 대홍수사건 후에 느려진 속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격변적 판구조론에서 해양지각이 갈라진 곳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쌓여 수천 m 높이의 해령을 이루게 되었고, 해령을 경계로 마치 컨베이어벨트처럼 해양판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새로 형성된 뜨거운 해양지각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상승하게 되고, 해양지각의 상승으로 바닷물이 대륙으로 넘치게 되면서 이 물이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격변적 판구조론에서는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의 출처를 40일 간의 비와, 판을 뚫고 분출한 지하수와 해양지각의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의 넘침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지판이 이동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재미있게도 이 사건은 창세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시편 104:6-9)

시편 104편의 내용이 창세기 대홍수를 묘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창세기 대홍수를 묘사한 것으로 볼 때, 기자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장면들을 마치 지켜본 듯 묘사하고 있고 이는 앞에서 소개한 해석들과 너무나 비슷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수증기층 이론, 수판 이론, 격변적 판구조론은 하나의 창조과학적 이론일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대홍수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반대론자들은 창조과학회의 수증기층 이론을 강하게 부정한다. 수증기층 이론이 물의 출처를 완벽하게 성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수증기층 이론은 응결된 수증기가 비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잠열의 문제나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인한 온실효과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층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이론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물층에 관련된 이론은 창조과학적인 하나의 가설이다. 왜냐하면 물층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층은 성

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본 대홍수 전후의 달라진 지구 환경으로 미루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추론해 볼 수는 있다.

과학 이론이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발전하듯이 물층에 대한 성경적 이론도 발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물층이 과거 수증기층 이론에서처럼 전 지구를 덮을 만큼의 두꺼운 수증기층이 아니라, 40일 정도의 비를 내릴 수 있는 얇은 수증기층으로 존재했으리라 본다.

수증기층의 두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얇은 수증기층도 햇빛이나 별빛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존층(ozone layer)도 압축하면 약 0.3 cm 두께에 불과하지만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참조](#)

맹렬한 풀무불

(다니엘 3)

095 맹렬한 풀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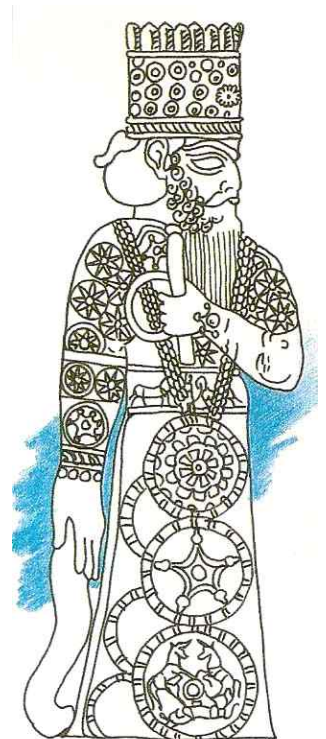
(다니엘 3)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왕국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왕은 그들을 맹렬한 풀무불에 산채로 태우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라 평지

“두라”라는 단어는 고대 바벨론의 장소를 이름 붙일 때 사용하는 통상적인 단어이다. 그 단어는 “벽”이라는 뜻을 가지며 아마도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둘레에 건설한 벽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두라 평지 혹은 두라 계곡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1863년에 프랑스 고고학자 Jules Oppert는 바벨론에서 남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신상의 주춧돌을 발굴했다. 그때 이후로 그 지역을 톨루 두라(두라라고 알려진 곳)라고 불러왔다.



<BC 9세기의 원통형 명각을 보고 그린 마르둑 신>

금 형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묘비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칭송한 것이 새겨진 것을 보면 그것은 그 신에 대한 우상이었을 것이다.

마르둑은 바벨론 왕국의 주요한 신들 중의 하나였다. 매년 봄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신년축제를 기념했다. 그때 마르둑을 공식적으로 드높였다. 바벨론의 다른 모든 신들의 신상을 배나 마차 등을 이용하여 바벨론 도시로 운반해 와서는 마르둑 신전의 거대한 홀에 있는 마르둑 신상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들 신들 모두는 다가오는 해의 각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다듬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풀무불

느부갓네살 왕의 맹렬한 풀무불은 용광로라고 부르는 거대한 솥 같은 것이었다. 용광로 안에서는 진흙 벽돌을 구웠다. 이들 벽돌은 바벨론 도시 전역에서 행하는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풀무 혹은 용광로는 개구부가 위에도 있었고 옆으로도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옆의 개구부를 통해 세 사람과 대화를 했을 것이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 거대한 풀무를 평상시보다 일곱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힘세고 용감한 군인 몇 명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후 그들을 불속으로 던지라고 했다.

그의 군인들은 불의 온도가 자기들 역시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실히 알면서도 지체 없이 왕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바벨론에서는 왕이 최고의 통치자였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는데, 풀무 불에서 빠르게 죽는 경우도 있고 고문하는 사람들의 손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외치는 자가 경고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를 거
 부했기 때문에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 그림은 앗시리아-바벨론 사람의 음악가들을 보여준다.
 이들 악기의 이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되었다.> [창조](#)

창조된 종류

— 어떻게 다른 종들을 얻게 되는가? —



제임스 가족은 동물원에 가는 여행을 오랫동안 고대해 왔다! 각자는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좋아하는 동물이 있다. 마침내 그들은 이사벨이 좋아하는 고양이과 큰 동물에게로 왔다. 그들은 사자, 호랑이, 팬더를 보았다. “그런데 있잖아, 그들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레오의 더 큰 버전 같이 생겼어!”

엄마가 대답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란단다.”

“진화와 차이점은 뭔가요?”

또 다른 가족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종류”란 무엇인가?

“종류”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범주를 묘사하는 성경적 방식이다. 창조주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다른 종류의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여러 종류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된 종류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한다.

두 동물이 같은 종류의 일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생물이 “종류대로” 자손을 갖게 되었다고 10번 말씀하셨다. 두 동물이 자손을 가질 수 있다면(이종교배) 그들은 창조된 종류가 같다. 예를 들어, 사자와 호랑이는 라이거 혹은 타이온 등의 자손을 낳을 수 있다. 그러한 혼합된 자손을 잡종이라고 부른다. 어떤 동물들은 매우 달라서 잡종을 전혀 가질 수 없거나, 그들의 잡종이 자손을 낳을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종/species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두 개의 다른 종들이 동일한 세 번째 종과 이종교배가 가능하다면 그 셋은 모두 같은 종류이다. 예를 들어 사자는 푸마와 이종교배를 할 수 없지만, 사자와 푸마 둘 다 표범과는 이종교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마가 말했듯이, 그들은 비록 겉모습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모두 고양이 종류의 일부이다.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1:11-12; 20-25

이것이 진화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동물이 각 종류 안에서 아주 많은 다양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으므로, 그들은 털이 길거나 짧게, 크기나 색깔이 다르게 다양한 특질을 가질 수 있다. 사자와 호랑이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만; 한 종은 갈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종은 줄무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은 원래 창조될 때는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다 가졌던 고양이 종류로부터 나온 후손들이다. 때로는 복제 실수라고 하는 돌연변이로 인하여 백피증 동물과 같이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색깔을 만드는 화학물의 형성이 멈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복제 실수로 인하여 원래 날개가 없던 동물이 날개를 갖게 된다는 등 어떤 특질이 추가되는 경우는 없다.

*더 깊게 파 보라: 요한복음 1:1-3

하나님은 동물을 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동물이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창조한 것은 설계가 좋은 것이

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물들로 하여금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창조세계에 내려진 저주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야기시켰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는 그것들을 다르게 사용했었다. 판다는 여전히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사용하여 대나무를 먹고 있다. 타락 이전에 모든 생물은 식물만을 먹었는데, 지금은 타락으로 인하여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을 먹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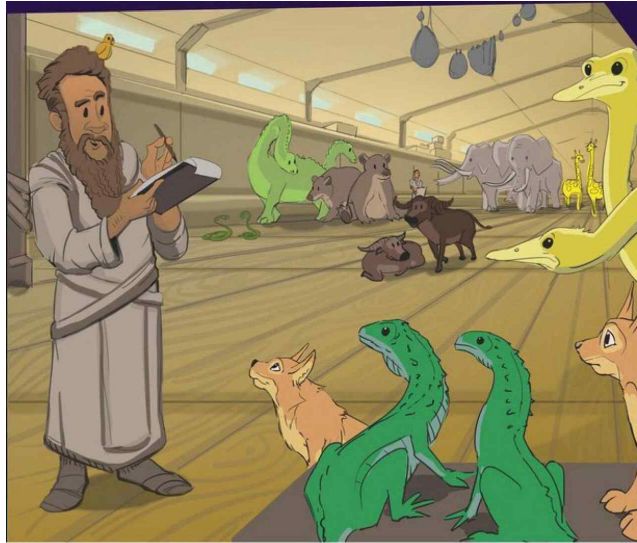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1:29-31, 창세기 3:17-19



아담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가?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일부에게만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창세기 2장은 아담이 “가축” 즉 오늘날 양이나 소 같이 사람과 친숙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는 “들의 모든 짐승”, 아마도 나중에 우리가 ‘야생’이라고 말하는 육지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곤충, 바다 생물은 아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는 종들이 아니라 종류라는 대표에만 이름을 붙였다. 즉 사자, 호랑이, 치타 등 각각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그 당시에는 이들이 없었다) 고양이 종류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2:19-20



노아가 방주에 모든 종류를 다 태울 수 있었는가?

노아는 육지 동물의 각 종류마다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은 일곱 쌍씩 방주에 태웠다. 모든 종들이 아니라 각 종류 한 쌍씩을 태웠으므로 방주에 타야 하는 모든 동물을 태우고도 방주에는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고양이는(크든 작든) 방주에 탔던 한 쌍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원래 개의 종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축화된 개와 코요테 혹은 심지어 늑대까지 방주에 다 태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원래 개의 종류 암수 한 마리씩만 방주로 보내면 되었다.

또한 방주는 거대했다! 방주는 화물차로 말해서 340대의 세미트레일러를 실을 수 있었다. 이것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5km(3마일)의 길이이다!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6:13-22

사람은 원숭이와 같은 종류로 창조되었는가?

아니다. 사람은 결코 다른 종들로 분화되지 않은, 독특하게 창조된 종류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 매우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최초의 한 쌍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원숭이는 몇몇 다르게 창조된 종류의 일부이다.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1:26-27; 2:7-24

“하나님이 동물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참조

출처: Creation ex nihilo Vol. 39(2017), No. 3, pp.32-35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2017년도 포항지역 창조과학 심화과정

-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복음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창조과학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창조과학 기본과정 수료하신 분

주요 프로그램:

- 기원과학 쟁점분석
- 지적설계와 창조
- 우주창조와 연대
- 창조과학 Q&A 등

교육기간: 2017. 06. 12 ~ 07. 10 (5주 과정)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반)

등록비: 7만원

장소: 기쁨의 교회(포항)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참가신청/문의: 010-2051-0922
(지명구 간사, 카톡아이디 jimg)

특기사항:

- 강사과정 수강자격 부여
-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명의 수료증 수여
(4주 이상 참석 및 필독서 감상문과 간증문 제출 하신 분)

주최: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대한민국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창조과학 심화과정 (포항)

- 일시: 2017. 06. 12 ~ 07. 10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6시30분~9시30분
- 장소: 기쁨의 교회(포항)

Program

	1주 (6월 12일)	2주 (6월 19일)	3주 (6월 26일)	4주 (7월 3일)	5주 (7월 10일)
18:40-19:00	등록 접수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19:00-20:00	오리엔테이션 (심화과정 소개) <단체사진촬영> 강의1: 생명정보의 기원 (강사: 김영호 박사)	강의3: 창세기의 우주적 암호 (강사: 신동수 교수)	강의5: 우주창조와 연대 (강사: 권진혁 교수)	강의7: 정크(Junk) DNA는 쓰레기 인가? (강사: 김경태 교수)	강의9: 생명설계 (강사: 전창진 교수)
20:00-20:30	질의 응답 & 휴식	질의 응답 & 휴식	질의 응답 & 휴식	질의 응답 & 휴식	질의 응답 & 휴식
20:30-21:30	강의2: 기원과학 쟁점 분석 (강사: 현창기 교수)	강의4: 지적설계 (강사: 서병선 교수)	강의6: 진화론의 역사 와 진화주의 (강사: 정재훈 강사)	강의8: (제목 미정) (강사: 김종배 교수)	강의10: 유신진화론의 영향 (강사: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장)) 수료식
21:30-22:00	질의 응답 & 친교	질의 응답 & 친교	질의 응답 & 친교	질의 응답 & 친교	질의 응답 & 친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2017 청소년 creation 캠프

주제 Know the Creator, your God!

2017. 7. 15(토) 13:30 ~ 20:00

내용	창세기 대홍수의 지질학적, 고고학적 증거
장소	원일교회
대상	중등부 50명, 고등부 50명
회비	사전등록 2만5천원, 현장등록 3만원
강사	한국창조과학회 강사
문의	강기태 010 . 2823 . 9698 지명구 010 . 2051 . 0922
주관	KACR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지 부 기도제 목

1. 지부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앞서 섬기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소서.
2. 차세대의 젊은 창조과학자들을 세워주셔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3. 2017년 어린이 (7/8) 및 중고등부 창조과학캠프 (7/15)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4. 2018년 전국학술대회 준비가 잘 되도록 - 2018 대구에서 개최될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대구·경북지역 기독교계가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소서. 학술대회가 개최될 장소를 허락하시고, 신학대학들이 연계하게 하시고, 훌륭한 과학적, 신학적, 세계관적 연구 성과가 나타나 학술대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술대회가 되게 하소서.
5. 창조Study 모임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6. 포항의 심화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과정까지 이어져서 새로운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7. 구미지역 기본과정을 위해서 (9월 예정)
8. 지속적인 군부대 및 학교사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게 하소서.
9. 후원교회들(대평교회, 동로교회, 동성교회, 삼일교회, 시와찬미교회, 아멘교회, 여남교회, 영안교회)이 말씀에 바로 선 영적 성장을 하며, 더 많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가 생기게 하소서.

지 부 소 식

2017년 6월 12일~7월 10일(5주)

창조과학 기본과정 (포항) 매주 월요일 저녁6시30분 ~ 9시30분 (장소: 기쁨의 교회)

2017년 6월 12일~7월 10일(5주)

창조과학 심화과정 (포항) 매주 월요일 저녁6시30분 ~ 9시30분 (장소: 기쁨의 교회)

2017년 7월 8일(토) 9:30-16:00

2017 어린이 creation(창조) 캠프 (장소: 만촌교회)

2017년 7월 15일(토) 13:30-20:00

2017 청소년 creation(창조) 캠프 (장소: 원일교회)

2017년 7월 20일(목)

7월 정기모임

** 편집인의 변 **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운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생명운동 시작의 결과는 성장하며 나무처럼 자라 새들이 깃들이는 평안과 안식과 풍요가 있는 생명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겨자씨 같은 생명을 뿌리는 일에 창조과학회가 어린이&청소년 창조캠프를 뿌립니다. 다음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열심히 감사하며 뿌립니다. -현옥-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